

##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에 대한 연구

<sup>1</sup>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殷哲旻<sup>1</sup> \*

### A study on the concept of pulse of the vital gate assigned on left or right by sex distinction

Eun seokmin<sup>1</sup> \*

<sup>1</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was done to find the philolog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pulse of the vital gate being assigned left or right according to sex distinction, and study its theoretical features that had been applied to clinical diagnosis.

**Methods** : Medical books such as *Maijue*(脈訣), *Leizheng Huorensu*(類證活人書), *Maijuezhizhang*(脈訣指掌), *Yixuerumen*(醫學入門), which directly mentions or having been considered to mention such concept of pulse of the vital gate, were inquired to find the philological origin of the concept. And after the philological origin was confirmed, combination between this concept and traditional pulse theory was also discussed.

**Results & Conclusions** : The philological origin of the concept was confirmed as having the Taoist origin. In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rough the contents of *Xiyuedouxiansheng Xiuzhenzhinan*(西嶽竇先生修真指南). A term that is called 'the vital pulse(命脈)' appears in this book, and it could be said that the concept of 'the vital pulse' which is assigned on left or right according to sex distinction in the book like this had lead the pulse assignment of the vital gate into such a form that considers the sex distinction. After being accepted in medical theory, this concept also had been united with traditional pulse theory that appears in *Nanjing*(難經) and *Maijing*(脈經) to become a applicable theory in clinical diagnosis.

**Key Words** : pulse assignment(脈診), the vital gate(命門), sex distinction.

## 1. 서 론

\* Corresponding Author : Eun Seokmin,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443 Samrye Rd, Wanju County, Jeonbuk, ROK  
Tel: +82-63-290-1475, E-mail: eskmin@woosuk.ac.kr  
Received(30 October 2014), Revised(17 November 2014),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은 寸口脈을 살핌에 있어 남자는 우측 尺脈이 命門에 배속되고 여자는 좌측

Accepted(2015년 02월13일).

尺脈이 命門에 배속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寸關尺의 臟腑 배속에 있어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가 없지만 命門만은 서로 반대가 된다고 보는 것으로서, 그 개념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 남녀의 兩腎의 발생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즉 兩腎의 발생에 있어 남자는 右腎이 먼저 생하고 여자는 左腎이 먼저 생하며, 이에 따라 남녀 각각 먼저 생하는 腎에 해당하는 尺脈이 命門脈이 된다는 것이다.

命門의 脈診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주된 견해는 주로 命門을 우측 尺脈에서 살핀다거나 양측 尺脈에서 모두 살필 수 있다거나 또는 命門은 經脈이 없고 正臟도 아니어서 脈診이 가능하지 않다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1)</sup>. 이에 비해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이 의서에 등장한 예는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예로는 宋代의 朱肱의 저작인 『類證活人書』를 들 수 있다. 朱肱은 『類證活人書』에서 脈診에 대해 논하면서 이 개념을 언급하였으며, 이후 朱肱의 경우와 같은 개념을 『脈訣指掌病式圖說』, 『醫學入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우 적은 수의 의서에만 등장하는 탓에 그 영향력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張景岳이 『質疑錄』에서 간접적이거나 이 개념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개념이 의학이론의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의 兩腎의 발생의 차이에 따라 命門脈을 서로 반대로 본다고 하는 개념은 남녀의 생리적인 면의 근본적인 차이에 관계되는 것인데, 남녀에 따라 兩腎의 발생순서가 다르다는 점이나 이에 따른 脈學적인 관점은 모두 의학이론 상에서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이 개념의 연원에 대한 문헌적 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근래의 陳誼敬 등의 연구에서도 역대 의가들의 命門 연구를 정리하면서 命門學說적인 관점에서 朱肱의 예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2)</sup>.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의서들을 더 넓

게 검토하면서 그 개념의 연원을 찾고자 하였고, 이로부터 高陽生의 저작으로 전해지는 『脈訣』과 함께 『西嶽寶先生修真指南』과 같은 道教저작이 그 연원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西嶽寶先生修真指南』과 같은 道教저작을 통해 의서들 내의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의 연원을 찾을 수 있었고, 의서들 내에서는 『脈訣』에서 촉발된 논의가 이후 朱肱, 『脈訣指掌病式圖說』, 『醫學入門』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먼저 『脈訣』을 비롯하여 『類證活人書』, 『脈訣指掌病式圖說』, 『醫學入門』 등의 의서들을 통해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이 전개된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내용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개념의 연원이 『西嶽寶先生修真指南』과 같은 道教저작에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道教저작에 기원을 둔 내용이 의학이론에 원용되면서 기존의 의서들의 내용과 어떻게 결부되어 그 개념이 전개되었는지 고찰하는 한편 이 개념이 의학이론 면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을 논한 예들

### 1) 『脈訣』

『脈訣』은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의서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저작이라 할 수 있다. 『脈訣』에서 언급되는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命門心包皆係相火，…… . 二者動脈，皆在尺部，故互言之。女人反此背看之，尺脈第三同斷病。”<sup>3)</sup>

이 내용에 따르면 命門과 心包가 모두 相火와 관계되며, 그 脈이 모두 尺部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脈訣』에서는 또한 “次立左尺腎與勝

1) 黃元德, 金重漢. 氣口脈診法の 臟腑配屬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9. 12(1). pp.243-244.

2) 陳誼敬, 鄭洪新. “命門”辨析. 中華中醫藥學刊. 2013. 31(7). p. 1537.

3) 吳祺鏞 譯. 國譯王叔和脈訣. 서울. 成輔社. 1994. p.43.

脈, ……，次立右尺命門三焦相火之位<sup>4)</sup>라고 하였으므로, “二者動脈, 皆在尺部”라 한 것은 心包와 命門의 脈이 모두 右尺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이라 한 부분은 女人의 경우 남자와 반대로 보아야 하는 점이 있되 尺脈에서 ‘斷病’하는 것은 동일함을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된다고 하는 개념이 이후 주로 命門과 관련되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元代의 의가인 戴起宗이 『脈訣刊誤』에서 이에 대해 논한 내용에 따르면, 『脈經』에서는 양쪽의 尺脈에 腎과 膀胱이 배속된다고 하면서 命門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脈訣』에서 命門을 右尺에 배속하였으며<sup>5)</sup>, 또한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이라 한 것은 『脈訣』이 命門의 男右女左의 개념을 받아들인 결과로서, 이에 따라 尺脈에서 남녀의 命門을 서로 반대로 보게 되었다고 논하고 있다<sup>6)</sup>. 『脈訣刊誤』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며, 남녀의 脈이 다른 것은 關上 및 關下의 盛衰나 左右의 大小 등의 脈形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脈位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脈訣刊誤』의 입장은 脈位를 논함에 있어 臟으로서의 腎과 命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脈訣』을 두고 이 저작이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에 ‘惑’하였다고 한 것은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과 관련하여 『脈訣』에 영향을 준 저작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脈訣刊誤』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脈訣』에서의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

의 부분이 반드시 命門의 男右女左의 개념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脈訣』 자체에서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이라 한 것의 실제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로, 이 부분이 의학이론 상에서 命門脈의 男右女左에 대한 관념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sup>7)</sup>

## 2) 『類證活人書』

朱肱은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을 남녀의 兩腎의 발생의 차이라는 구체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논한 최초의 예라 할 수 있다. 朱肱이 이를 언급한 것은 『類證活人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脈을 논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진 것이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좌우 手에서 魚際로부터 1寸이 되는 곳을 寸口라 하고 尺澤으로부터 1尺이 되는 곳을 尺部라 하며, 그 중간의 곳을 關位라 한다. 關位는 6분에 이르는데, 陽部로 3분만큼 出해 있고 陰部로 3분만큼 入해 있다. 關前의 부위는 陽이 되고 關後의 부위는 陰이 되니, 곧 陰陽의 關津이 되는 것이다. 寸脈이 아래로 關位에 이르지 못하면 陽이 絶한 것이고, 尺脈이 위로 關位에 이르지 못하면 陰이 絶한 것이다. 陽이 寸內에서 9분을 得하는 것은 陽奇의 數를 취한 것이고, 陰이 尺內에서 1寸을 得하는 것은 陰耦의 數를 취한 것으로서, 이에 寸關尺이라 하는 것이

4) 吳祺鏞 譯. 國譯王叔和脈訣. 서울. 成輔社. 1994. p.42.

5) 戴起宗. 脈訣刊誤.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9. “脈經兩尺并屬腎與膀胱, 今脈訣以命門列右尺.”

6) 戴起宗. 脈訣刊誤.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0. “女人反此背看云者, 原其惑于男左腎右命門, 女右腎左命門, 故言反此. 又斷之曰, 尺脈第三同斷病, 則反此背看者, 只論尺脈耳. 男女有異同者, 脈形爾. 如男脈關上盛, 女脈關下盛, 男左大右小爲順, 女右大左小爲順, 男女脈位即無異同也. 以十二經脈所行之終始, 五歲之定位成形, 則一也. 惟壅戶及胞門子戶, 精血之不同爾, 安可言脈位, 女人與男子反而背看乎? 脈訣之誤, 因于腎與命門有男女之別, 不知腎有兩, 其左爲腎, 右爲命門, 難經雖有左右之別, 亦無男女左右之分, 其實皆腎臟非命門也.”

7) 이와 관련하여 『褚遺書』에서 볼 수 있는 남녀 脈의 차이 역시 주목할 만하다. 褚澄은 남녀의 脈의 차이를 논하는 기본원리로 ‘陽順陰逆’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陰陽의 특성에 따른 上下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左手의 寸脈이 極上의 자리가 되고 右手의 尺脈이 極下의 자리가 되며, 아래로부터 生하여 ‘陽順’이 되는 남자는 우측 尺脈이 ‘受命之根本’이 된다고 하였고 위로부터 生하여 ‘陰逆’이 되는 여자는 좌측 尺脈이 ‘受命之根本’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受命之根本’의 개념을 命門이란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褚澄의 脈法 또한 命門의 男右女左라는 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본 논고에서는 命門이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제시되면서 남녀 모두 尺脈에 배속된 경우만을 다루고자 한다. 褚澄의 脈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振鎬의 ‘褚澄과 그의 醫學思想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원전학회지. 26(3). pp.25-26’을 참고할 수 있다.

다. 寸上 1분이 되는 곳을 魚際라 하고 關下 1분이 되는 곳을 神門이라 하며, 左關은 人迎이라 하고 右關은 氣口라 한다. 三陽은 地로부터 長하므로 남자는 尺脈이 항상 沈하고, 三陰은 天으로부터 生하므로 여자는 尺脈이 항상 浮하다. 남자는 陽이 많고 陰이 적으므로 그 脈이 關脈 상부에 있어 寸脈이 盛하고 尺脈이 弱하다. 여자는 陰이 盛하고 陽이 微하므로 그 脈이 關脈 하부에 있어 寸脈이 沈하고 尺脈이 盛하다. 따라서 남자는 오랜 동안 泄瀉하면 좋지 못하고, 여자는 오랜 동안 吐하면 좋지 못하다. 남자에게 여자의 脈이 나타나면 不足한 것이고, 여자에게 남자의 脈이 나타나면 太過한 것이니, 이른바 ‘反’이라 한다.(지금 사람들은 남자가 尺脈이 항상 弱하고 여자가 尺脈이 항상 盛한 것을 두고 ‘反’이라 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남자는 陽이 有餘하므로 脈이 상부에 있어 尺脈이 반드시 弱하게 나타나며, 여자는 陰이 有餘하므로 脈이 하부에 있어 寸脈이 반드시 微하게 나타나니, 이것이 바른 것이지 ‘反’이 아니다. 또한 남자는 우측 尺脈이 命門의 脈이 되고 여자는 좌측 尺脈이 命門의 脈이 된다고 하는 것을 두고도 ‘反’이라 하는데, 이 역시 틀린 것이다. 남자는 陰을 얻어 생하므로 먼저 右腎이 생겨나고 여자는 陽을 얻어 생하므로 먼저 左腎이 생겨나니, 이와 같은 것이 바른 것이지 ‘反’이 아니다. 이른바 ‘反’이라 하는 것은 단지 남자의 尺脈이 弱해야 하는데 도리어 盛하거나 여자의 尺脈이 盛해야 하는데 도리어 弱한 것을 이르는 것일 따름이다.)”<sup>8)</sup>

8)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p.91-92. “左右手去魚一寸名曰寸口, 去澤一尺名曰尺部, 兩境之間, 名爲關位. 關位六分, 陽部出三分, 陰部入三分. 關前爲陽, 關後爲陰, 爲陰陽之關津. 寸脈下不至關, 爲陽絕, 尺脈上不至關, 爲陰絕. 陽得寸內九分, 取陽奇之數, 陰得尺內一寸, 取陰耦之數, 是名寸關尺也. 寸上一分爲魚際, 關下一分爲神門, 左關爲人迎, 右關爲氣口. 三陽從地長, 故男子尺脈常沉, 三陰從天生, 故女子尺脈常浮. 男子陽多而陰少, 其脈在關上, 故寸盛而尺弱. 女子陰盛而陽微, 其脈在關下, 故寸沉而尺盛. 所以男子不可以久瀉, 女子不可以久吐. 男得女脈爲不足, 女得男脈爲太過, 所謂反也. (今人以男子尺脈常弱, 女子尺脈常盛, 謂之反, 非也. 男子陽有餘, 脈在上, 尺脈必弱, 女子陰有餘, 脈在下, 寸脈必微, 乃是正也, 非反也. 又以男子以右尺爲命門, 女子以左尺爲命門, 謂之反, 亦非也. 男子得陰以生, 先生右腎, 女子得陽以長, 先生左腎, 乃是正也, 非反也. 所謂反者, 只是男子尺脈常弱今反盛, 女子尺脈應盛今反弱, 謂之

反耳.)”  
윗 문장은 남녀의 脈의 順逆을 논한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難經』 十九難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다<sup>9)</sup>. 『難經』 十九難에 따르면 남자는 木에 해당하는 寅에서 생하고 여자는 金에 해당하는 申에서 생하며, 이에 따라 남자의 脈은 關上에 나타나고 여자의 脈은 關下에 나타난다. 이를 尺脈을 중심으로 보면 남자는 尺脈이 약하게 나타나고 여자는 尺脈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셈이며, 남녀 각각에서 尺脈의 강약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곧 이른바 ‘反’의 상태가 된다. 그런데 『難經』에서 남녀의 陰陽적 특성을 각각 ‘寅’, ‘申’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을 朱肱은 남녀 각각의 陰陽의 多少로 설명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尺脈을 살피는 것과 관련하여 命門脈을 언급한 것이다. 朱肱은 남녀 각각의 命門脈이 서로 달리 배속되는 이유에 대해 남자는 陰을 얻어 생하므로 먼저 右腎이 생하고 여자는 陽을 얻어 생하므로 먼저 左腎이 생하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이는 곧 먼저 생하는 쪽의 腎에 배속되는 尺脈이 곧 命門脈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내용은 尺脈의 강약을 살피에 있어 남녀 각각의 命門脈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다소 모호한 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脈訣刊誤』에서 『脈訣』을 비판한 것에서 본 것과 같은 脈形과 脈位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朱肱은 傷寒에서 太溪脈을 살피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도 命門脈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傷寒에는 왜 반드시 太溪脈을 살피야 하는가. 답하자면, 太溪穴은 足少陰腎經에 속하는데, 남자는 右腎이 命門이 되고 여자는 左腎이 命門이 되어 (三

反耳.)”

9) 전국한의과대학 원진학교실 편. 難經. 서울. 범인문화사. 2010. p.57. “曰, 經言脈有逆順, 男女有恒而反者, 何謂也? 然, 男子生于寅, 寅爲木, 陽也. 女子生于申, 申爲金, 陰也. 故男脈在關上, 女脈在關下. 是以男子尺脈恒弱, 女子尺脈恒盛, 是其常也. 反者, 男得女脈, 女得男脈也. 其爲病何如? 然, 男得女脈爲不足, 病在內. 左得之, 病在左. 右得之, 病在右. 隨脈言之也. 女得男脈爲太過, 病在四肢. 左得之, 病在左. 右得之, 病在右. 隨脈言之, 此之謂也.”

十六難에서 이르기를 ‘命門者，神精所舍，原氣所系，男子藏精，女子以胞’라 하였다) 生死를 주관한다. 병이 들어 있을 때 命門에 脈이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는다. 仲景은 이르기를 少陰病에 手足이 逆冷할 때 發熱이 있으면 죽지 않으며 脈이 이르지 않으면 太溪穴에 뜸을 七壯 뜨라고 하였다. 따라서 傷寒에는 반드시 太溪를 짚어보아 腎의 盛衰를 살펴야 한다.”<sup>10)</sup>

윗 문장에서 朱肱은 傷寒을 진단함에 있어 반드시 足少陰腎經 중의 太溪穴을 통해 腎의 盛衰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이와 관련해서도 命門脈을 언급하면서 남자는 右腎이 命門이고 여자는 左腎이 命門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논하였다. 또한 이에 덧붙여 『難經』三十六難의 左腎右命門의 개념을 언급한 점은 그가 命門脈을 넘어 命門 그 자체와 관련하여 『難經』의 설과 다른 관점을 내비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命門이 곧 生死의 要를 주관한다고 한 점을 생각해 볼 때, 太溪穴을 통해 腎의 盛衰를 살핀다는 것은 곧 命門의 盛衰를 살핀다는 뜻이며, 이 命門의 盛衰를 살핀에 있어 남녀의 命門의 위치가 다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자는 右腎이 命門이므로 우측 太溪穴을 살펴야 하고, 여자는 左腎이 命門이므로 좌측 太溪穴을 살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腎經의 原穴인 太溪穴을 통해 命門을 살핀다고 함은 곧 命門도 기본적으로는 腎의 범주 안에서 생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脈訣指掌病式圖說』

『脈訣指掌病式圖說』(이하 『脈訣指掌』으로 간칭)은 脈學 분야의 저작으로서,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룬 경우로 주목할 만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脈訣指掌』은 朱丹溪의 저작인 것으로 표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沈劼에 의하면, 『脈訣指掌』의 모든 현존하는 판본에는 朱丹溪의 문인인 葉英이 쓴 서언에 ‘題丹溪重修脈訣’이라고 되어 있으며, 본문의 시작 부분에도 ‘丹溪先生朱震亨彥修父著’ 또는 ‘元丹溪朱震亨著’ 등으로 표지되어 있다. 이는 이 저작이 朱丹溪의 저작이라고 보는 관점의 주된 근거가 되어 왔는데, 또한 한편으로 본문의 내용 중에 “丹溪先生曰，……”과 같은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朱丹溪의 문인인 葉英과의 관련성에 무게를 두기도 하였다. 반면에 이 저작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저작이 사실은 李東垣임을 주장한 경우도 있어 왔으며, 王肯堂과 丹波元胤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王肯堂은 『古今醫統正脈全書』에서 이 저작의 저자를 李東垣인 것으로 목록에 기재하였으며, 丹波元胤도 이에 찬동하여 『中國醫籍考』에서 저자를 李東垣이라 하였다. 王肯堂은 李東垣을 저자로 보는 것에 대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丹波元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즉 그는 특히 『脈訣指掌』의 내용 중에서 “予目擊壬辰首亂已來，民衆燥熱者，多發熱痰結咳嗽，……予于『內外傷辨』言之備矣.”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저작의 실제 저자를 李東垣이라고 본 것이다.<sup>11)</sup>

『脈訣指掌』에서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辨男女左右手脈法圖序’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또한 天道는 右旋하여 生化를 주관하므로 남자는 右腎이 먼저 생하며, 右는 陽에 속하고 三魂이 精氣가 되어 내려 붉게 되어 丹田에 자리하니, 남자는 命脈이 右手의 尺部에 있다. 地道는 左旋하여 成物을 주관하므로 여자는 左腎이 먼저 생하며, 左는 陰에 속하고 七魄이 眞氣가 되어 내려 검게 되어 子宮에 자리하니, 여자는 命脈이 左手의 尺部에 있다. 만약 남자가 병이 있을 때 右手 尺部의 命脈이 잘

10)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p.85-86. “傷寒何以須診太溪脈耶. 答曰, 太溪穴是足少陰腎之經, 男子以右腎爲命門, 女子以左腎爲命門, (三十六難曰, 命門者, 神精所舍, 原氣所系, 男子藏精, 女子以胞) 主生死之要. 病患有命門脈者活, 無者死. 仲景云, 少陰病手足逆冷, 發熱者, 不死, 脈不至者, 灸太溪七壯. 故傷寒必診太溪, 以察其腎之盛衰也.”

11) 沈劼. 『脈訣指掌病式圖說』及其作者考證.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3. 14(4). p.151.

나타나면 병이 비록 위태롭더라도 죽지 않으며, 여자가 병이 있을 때 左手 尺部の 命脈이 잘 나타나면 병이 비록 위태롭더라도 또한 죽지 않는다. 天은 陽이 南에 있고 陰이 北에 있으므로 남자는 寸脈이 盛하고 尺脈이 弱하니, 陽이 寸에 있고 陰이 尺에 있는 것이다. 地는 陽이 北에 있고 陰이 南에 있으므로 여자는 尺脈이 盛하고 寸脈이 弱하니, 陽이 尺에 있고 陰이 寸에 있는 것이다. 陽은 强하고 陰은 弱한 것이 天의 道인 것이지 ‘反’이 아니다. ‘反’의 경우는 병이 되는데, 남자에게 여자의 脈이 나타나면 不足이 되고 여자에게 남자의 脈이 나타나면 太過가 된다.…… 남자는 左尺이 精府가 되고 여자는 右尺이 血海가 되니, 이는 天地의 신묘한 변화로서 남녀의 구별됨이요 生死를 아는 것이다.”<sup>12)</sup>

윗 내용을 보면 命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남녀 각각에 있어 兩腎의 발생을 天道와 地道의 右旋 및 左旋이란 개념에 근거해 논하면서 그에 따른 남녀의 命脈의 위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남자는 左尺이 精府가 되고 여자는 右尺이 血海가 된다고 한 내용을 참고해 보면, 『脈訣指掌』에서는 직접적으로 남녀 각각의 命門의 위치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남자는 左腎이 精府로서의 腎이 되고 右腎이 命門이 되며 여자는 右腎이 血海로서의 腎이 되고 左腎이 命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윗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男子先生右腎，右屬陽，爲三魂降精氣，赤以鑲丹田，故男子命脈在右手尺部.”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三魂降精氣，赤而鑲丹田’과 같은

부분을 통해 右腎과 우측 命脈 간의 상관성을 모호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은 道教저작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西嶽寶先生修真指南』이란 저작에서 찾았고, 이 저작의 관련 내용을 그에 대한 논의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sup>13)</sup>. 道教저작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의학이론에서의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이 道教의 養生論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西嶽寶先生修真指南』에서의 관련내용은 본 논고의 뒷부분에서 다시 고찰하고자 한다.

### 3) 『醫學入門』

命門의 男右女左의 개념은 『醫學入門』에서도 역시 脈을 논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命門은 또한 命脈이라고도 하며, 양쪽 尺前一分의 곳을 神門이라 하는데 命門의 脈이 위로 溢하는 것을 살피는 것일 따름이다. 무릇 병이 있을 때 이 脈이 있으면 살고 이 脈이 없으면 죽게 된다. 生死를 판단할 때에는 물론 胃氣가 주가 되지만, 이를 아울러 살피면 더욱 정확하다. 다만 命門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데, 天道는 右旋하므로 남자는 右腎이 먼저 생겨나니 命門이 우측에 있고 腎이 좌측에 있으며, 地道는 左旋하므로 여자는 左腎이 먼저 생겨나니 命門이 좌측에 있고 腎이 우측에 있다. 만약에 남자가 병이 있을 때 우측 尺部の 命脈이 잘 나타나면 병이 비록 위태로워도 죽지 않으며, 여자가 병이 있을 때 좌측 尺部の 命脈이 잘 나타나면 병이 비록 위태로워도 또한 죽지 않는다.”<sup>14)</sup>

12) 曹炳章 等輯. 脈訣指掌病式圖說. 中國醫學大成續集 二十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87-89. “且以天道右旋而主乎生化，則男子先生右腎，右屬陽，爲三魂降精氣，赤以鑲丹田，故男子命脈在右手尺部。地道左旋，主乎成物，則女子先生左腎，左屬陰，爲七魄降真氣，黑以鑲子宮，故女子命脈在左手尺部。若男子病，右尺部命脈好，病雖危不死，若女子病，左尺部命脈好，病雖危亦不死。天之陽在南而陰在北，故男子寸脈盛而尺脈弱，陽在寸，陰在尺也。地之陽在北而陰在南，故女子尺脈盛而寸脈弱，陽在尺，陰在寸也。陽強陰弱，天之道也，非反也。反之者病，故男得女脈，爲不足，女得男脈，爲太過。……男子以左尺爲精府，女子以右尺爲血海，此天地之神化也，所以別男女，決死生者也。”

13) 張繼禹 主編. 西嶽寶先生修真指南. 中華道藏 十九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4. p.859. “……血包精爲男，乃先生其右腎，故屬陽應日，主三魂降精氣，赤而鑲丹田，故命脈在右手之尺部也。……精裹血爲女，則先生其左腎，故屬陰應月，主七魄降真氣，黑而鑲子宮，故命脈在左手之尺部也。”

14)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206. “命門一云命脈，又兩尺前一分名神門，診命門脈上溢耳。凡病有此脈則生，無此脈則死。斷生死固以胃氣爲主，兼此尤爲真的。但命門男女有異，天道右旋，男子先生右腎，故命門在右而腎在左，地道左旋，女子先生左腎，故命門在左而腎在右。”

윗 내용을 보면 李梴이 논한 命門의 개념 역시 남녀 각각 먼저 생하는 쪽의 신을 命門으로 본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朱肱의 경우와 같다. 다만 李梴은 이 命門에 대해 ‘命脈’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였고, 命門의 발생의 남녀 간 차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天道右旋 및 地道左旋이란 개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李梴의 논의는 『脈訣指掌』에서 그 주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李梴이 『醫學入門』에 『脈訣指掌』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례로 『醫學入門』內集 卷一の ‘七表八裏九道脈名’에 “九道從丹溪者, 『脈經』有數無短, 『內經』有革無牢故也.”<sup>15)</su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九道從丹溪者”라 한 부분은 곧 李梴이 九道脈을 논함에 있어 朱丹溪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 『脈訣指掌』의 내용을 따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丹溪脈圖始補命門包絡”<sup>16)</sup>이라 한 부분에서 ‘丹溪脈圖’라는 저작 역시 『脈訣指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아가 『醫學入門』에서 『脈訣指掌』의 내용을 더 찾아볼 수 있는데<sup>17)</sup>, 이 부분과 같은 경우 李梴이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인용된 내용의 도입부분이 『脈訣指掌』에서는 “天之陽在南而陰在北, 故男子寸脈盛而尺脈弱, 陽在寸陰在尺也. 地之陽在北

而陰在南, 故女子尺脈盛而寸脈弱, 陽在尺陰在寸也.”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李梴이 『難經』十九難에서 말한 ‘男子生于寅’, ‘女子生于申’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脈訣指掌』의 내용에 의하면, 이 저작에 서문을 쓴 葉英은 이와 같은 『難經』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오직 朱丹溪에 이르러 비로소 이 오류가 바로잡힌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sup>18)</sup>. 李梴은 『脈訣指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았을 것임에도 『難經』의 관점을 부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葉英의 관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脈訣指掌』 원문의 내용에 확실히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내용의 끝부분에서 “叔和云,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 是也. 或不知此陰陽, 五臟倒裝者, 非.”라고 한 부분은 李梴이 덧붙인 부분으로서, 『脈訣』에서의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의 부분이 尺脈의 남녀 차이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李梴은 脈診과 관련하여 『脈訣指掌』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그가 “命門一云命脈”이라 한 것은 『脈訣指掌』에서 ‘命脈’으로 언급된 부분을 인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脈訣指掌』에서의 ‘命脈’을 命門脈의 개념으로 받아들였고, 이 命脈의 개념을 포함한 남녀 脈의 차이에 대한 내용들을 『醫學入門』의 脈診 관련 부분에 산재시켜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脈訣指掌』 본래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거나 일부 내용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命門脈의 개념은 위중한 상황에서 生死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李梴은 “斷生死固以胃氣爲主, 兼此尤爲眞的”라고 하여 生死를 살피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若男子病, 右尺部命脈好, 病雖危不死, 若女子病, 左尺部命脈好, 病雖危亦不死.”

15)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72.

16)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62.

17)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216.

“天之陽在南而陰在北, 男子面南而生于寅, 則兩寸在南而得其陽, 寸脈洪而尺脈弱者, 常也. 地之陽在北而陰在南, 女子面北而生于申, 則兩尺在北而得其陰, 寸脈弱而尺脈洪者, 常也. 陽強則陰弱, 天之道也, 反之者病. 男得女脈爲不足, 女得男脈爲太過. 左得之, 病在左, 右得之, 病在右. 男左女右者, 地之定位也. 蓋人立形于地, 故從地化, 楚人尚左者, 夷道也. 故男子左脈強而右脈弱, 女子則右脈強而左脈弱. 天以陰爲用, 故人之左耳目明于右耳目, 地以陽爲用, 故人之右手足強于左手足, 陰陽互用也, 非反也. 凡男子診脈, 必先伸左手, 女子診脈, 必先伸右手. 男子得陽氣多, 故左脈盛, 女子得陰氣多, 故右脈盛, 男子以左尺爲精府, 女子以右尺爲血海, 此天地之神化也, 所以別男女, 決生死. 叔和云,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 是也. 或不知此陰陽, 五臟倒裝者, 非.”

18) 曹炳章 等輯. 脈訣指掌病式圖說. 中國醫學大成續集 二十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2. “況乎脈者, 天地之元性, 男子之寸脈盛而尺脈弱者, 肖乎天也, 女子之尺脈盛而寸脈弱者, 肖乎地也. 秦越人乃以男子生于寅, 女子生于申, 三陽從天生, 三陰從地長, 謬之甚矣. 遂令百吠聲流至於今, 千有餘年莫有能正其謬者. 獨先生以神明之資, 洞燭物理, 乃推本律法, 混合天人, 而著論闡之, 使千載之誤, 一旦昭明, 豈不題哉.”

胃氣의 중요성을 먼저 말하고 있다. 生死를 판단함에 있어 남녀를 구별하여 胃氣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朱丹溪가 『格致餘論』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sup>19)</sup>, 만약 李梴이 命門脈과 관련하여 胃氣를 언급하면서 『格致餘論』의 이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醫學入門』에서 논한 命門脈의 활용은 먼저 남녀 각각 人迎과 氣口를 통해 胃氣를 살핀 다음 이어 命門脈을 살핌으로써 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醫學入門』에서는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을 논한 것 외에도 腎, 命門 및 이와 관련된 尺脈의 개념을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李梴은 腎에 대해 左腎은 水에 속하고 右腎은 火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자는 左腎을 위주로 하고 여자는 右腎을 위주로 한다고 하였다<sup>20)</sup>. 이를 命門의 男右女左의 관점에서 보면 곧 남녀 모두 각각 命門이 아닌 쪽의 腎이 주된 腎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 되며, 이에 따라 남자는 水에 속하는 左腎이 주된 腎이 되고 여자는 火에 속하는 右腎이 주된 腎이 된다. 그런데 左腎과 右腎에 대해 논한 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左腎은 收藏의 기능을 통해 納氣, 收血, 化精 등을 행하며<sup>21)</sup>, 命門에 해당하는 右腎은 左腎으로부터 運入된 精血을 藏하여 남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행하게 된다고 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은 내용들은 결국 『難經』의 左腎右命門의 설과 命門의 男右女左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개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脈診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命門은 우측 尺脈에서 살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sup>23)</sup>, 命門과 함께 心包 역시 우측 尺脈에서 살핀다고 한 것은 李梴이 心包도 命門이라고 한 바와 통하는 것이다<sup>24)</sup>. 그리고 命門에는 相火가 있어 元氣와 관계되므로 命門의 脈을 통해 元氣의 盛衰를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여기에서도 또한 命脈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sup>25)</sup>. 이와 같은 내용은 『脈訣』에서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命門의 脈을 통해 元氣의 盛衰를 살피는 것에 대해 이를 命門에 相火가 있어 元氣와 관계되기 때문이라 한 것은 『脈訣』에서 “命門心包皆係相火”라고 단순히 언급한 것과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元氣’와의 관련성 하에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여자의 경우 左腎이 命門이 된다고 할 때 命門으로서의 左腎은 相火나 元氣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남겨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張景岳

張景岳은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예이다. 비록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논하면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비판의 예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내용은 『質疑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命門의 火를 단지 우측 尺脈에서만 살핀다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에 더해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을 간단히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928. “若男子久病, 氣口充于人迎者, 有胃氣也, 病雖重可治. 女子久病, 人迎充于氣口者, 有胃氣也, 病雖重可治. 反此者逆.”  
20)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54. “腎有兩枚, 左屬水而右屬火, 重各九兩, 右主女而左主男, 左右兩枚, 共一斤二兩, 男以左腎爲主, 女以右腎爲主.”  
21)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54. “左腎主納氣收血化精, 司冬之令, 專主收藏, 故曰封藏之本.”  
22)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59. “命門, 即右腎, 言寄者, 命門非正臟, 三焦非正腑也. ……命門爲配成之官, 左腎收血化精, 運入藏諸命門, 男以此而藏精, 女以此而系胞胎.”

23)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71. “左心小腸肝膽腎, 右肺大腸脾胃命. 心與小腸居左寸, 肝膽同歸左關定. 腎脈元在左尺中, 膀胱是腑常相應. 肺與大腸居右寸, 脾胃脈從右關認. 心胞右尺配三焦, 此爲初學入門訣.”  
24)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59. “命門下寄腎右, 而絲系曲透膀胱之間……上爲心包, 而膈膜橫連脂漫之外. 心包即命門, 其經手厥陰, 其腑三焦, 其臟心包絡, 其部分在心下橫膈膜之上. ……配左腎以藏真精, 男女陰陽攸分.”  
25)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60. “相君火以系元氣, 疾病死生是賴. 相火之臟, 元氣系焉. 凡病雖危, 命脈有神者生, 命脈無神者死.”

“사람은 두 개의 腎을 갖고 태어나 두 腎을 좌우의 尺脈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命門은 곧 두 腎의 중간에 자리한다. 이른바 命門의 火라고 하는 것은 즉 두 腎의 사이에 있는 元氣이다. 元氣는 命門에서 생겨나며, 右腎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다. 『難經』에서 두 腎 가운데 좌측의 것은 腎이고 우측의 것은 命門이라 하여 命門이 결국 우측에 속하는 것으로만 되어 버린 이래, 華元化가 이를 따라 左腎은 水에 속하고 右腎은 火에 속하는 것이라 하면서 命門의 火를 右腎에 귀속시켰다. 후대의 醫者들은 그 이치를 자세히 살펴지 않고 命門의 火를 논할 때면 우측 尺部에서만 살펴어 왔으니, 양측 尺部가 두 腎에 모두 해당하는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腎은 水에 속하여 함께 精을 藏하고 있으니, 이에 越人이 이르기를 남자는 命門에 精을 藏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精은 水에 속하지 火에 속하지 않으니, 火가 水 안에 있음은 이른바 一陽이 二陰의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命門의 火가 어찌 우측 尺部에서만 살펴질 수 있는 것이겠는가? 온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命門의 火는 어디에서 살펴질 수 있는 것인가? 역시 양측 尺部에서 살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측 尺脈의 강약을 통해 命門의 火의 盛衰를 살펴질 수 있는 것일 따름이다. 만약 右尺의 腎만을 命門이라 하고 左尺의 腎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폐단이 아닐 수 없다. 남자의 命門은 우측에 있고 여자의 命門은 좌측에 있다거나, 丈夫는 우측이 命門이고 좌측이 腎이며 여자는 좌측이 命門이고 우측이 腎이라 하는 것은 더욱 터무니없는 말로서 따져볼 가치도 없다.”<sup>26)</sup>

윗 내용에서 景岳은 命門이 두 腎의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며 命門의 火는 양측 尺脈에서 모두 살펴질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景岳은 양쪽 腎을 모두 水의 관점에서 보면서, 『難經』에서 右腎이 命門이고 남자는 이 命門에 精을 藏한다고 한 부분도 모두 腎 자체의 기능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두 腎과 命門 모두를 양측 尺脈에서 살펴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양측 尺脈에서 공통적으로 水와 火를 모두 살펴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質疑錄』의 다른 부분을 보면 命門의 火와 右尺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sup>27)</sup>, 이는 사실상 命門의 火가 三焦相火와의 관련성 하에서 右尺에서 살펴지는 것임을 말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景岳全書』의 경우를 보면 左尺과 右尺이 확실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즉 『景岳全書』에서는 左尺을 통해 腎과 膀胱, 大腸을 살펴고 右尺을 통해 腎과 三焦, 命門, 小腸을 살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左尺은 腎部로서 北方의 寒水의 氣를 품고 있고 右尺은 三焦部로서 北方의 天一相火의 氣를 품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sup>28)</sup>. 이와 같은 내용들은 命門을 우측 尺脈에 귀속시키고 있어 命門을 양측 尺脈에서 모두 살펴질 수 있다고 한 내용과는 모순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우측 尺脈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는 것이 좌측 尺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26) 張景岳. 質疑錄.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816. “人生有兩腎, 兩腎并診于左右尺, 而命門則居兩腎之中. 所謂命門之火者, 即兩腎中之元氣也. 元氣生于命門, 而不偏于右. 自『難經』有云, 腎有兩, 左爲腎, 右爲命門, 命門遂專屬之右, 而華元化因之始分左腎屬水, 右腎屬火, 故以命門之火歸之右腎. 後世醫者不詳其義, 論命門之火, 則必以右之尺部爲診, 豈知兩尺爲兩腎? 腎者水也, 俱藏精之舍也. 故越人云, 命門爲男子藏精. 精屬水, 不屬火, 火在水中, 所謂一陽居二陰之間者是也. 豈可以命門之火, 偏診于右尺耶? 舉世夢夢, 是可嗤也. 然則論命門之火者, 當于何診? 仍診之于兩尺可也. 以兩尺之強弱, 驗命門之火之衰旺爲得耳! 若以右尺之腎論命門, 而遺乎左尺之腎, 是習俗之弊, 不

可不亟正者也. 至有以男子之命門在右, 女子之命門在左, 而曰丈夫以右爲命門左爲腎, 女子以左爲命門右爲腎, 則又顛倒乖離而不可稽矣!”

27) 張景岳. 質疑錄.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812. “此命門在兩腎中間, 而不可以獨偏于右. 兩腎屬水, 有陰陽之分, 命門屬火, 在二陰之中. 故『脈經』以腎脈配兩尺, 但當曰左尺主真陰, 右尺主真陽, 而命門則爲陽氣之根, 隨三焦相火以同見于右尺則可, 若謂左腎則主于腎, 而右腎偏爲命門, 此千古訛傳之弊, 而不得不亟正之者也.”

28) 張景岳 著. 李南九 懸吐注釋. 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140. “左尺, 腎部也, 其候在腎與膀胱大腸, 得北方寒水之氣, 肝木受生, 心火受制, 其主陰氣之壽元. 右尺, 三焦部也, 其候在腎與三焦命門小腸, 得北方天一相火之氣, 脾土受生, 肺金受制, 其主陽氣之壽元.”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命門에 대한 景岳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를 兩腎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면서 『難經』에서 말한 右腎命門의 개념 역시 腎과 동일하게 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에게 있어 두 腎은 기본적으로 腎 그 자체일 뿐이지 命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그가 좌우측의 尺脈을 구분하여 말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좌측과 우측에 있어서의 氣化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水와 火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좌우측 尺脈에 고루 반영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 따라 景岳에게 있어서는 右腎이 命門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못하며, 나아가 두 腎에 있어 命門의 男右女左와 같은 개념은 더욱 의미 없는 낭설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 5) 『診宗三昧』

明末清初의 의가인 張璐가 저술한 『診宗三昧』에서는 여자의 경우 左尺이 命門이 된다는 이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婦人の脈法은 남자와 어떻게 다른가? 답하기를, 여자는 십사세에 天癸가 통하여 月事가 때에 맞추어 하하며, 이에 있어 전적으로 衝脈과 任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衝脈과 任脈은 精血의 海이고 그 脈이 肝과 腎을 따라 행하니, 이에 左尺이 命門이 된다. 陰陽應象論에 이르기를 陰陽은 血氣의 男女이고 左右는 陰陽의 道路라고 하였다. 天道는 左旋하여 陽氣를 주관하고 地道는 右轉하여 陰血을 주관하며, 陰은 陽을 좇으면서 陽을 지키는 것이 되니, 左尺에 도리어 命門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sup>29)</sup>

29) 張璐. 診宗三昧. 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965-966. “問婦人脈法, 與男子何異? 答曰, 女子二七天癸通, 月事以時下, 故其所重全在衝任. 衝任爲精血之海, 其脈常隨肝腎而行, 故以左尺爲命門. 陰陽應象論云,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蓋天道左旋而主陽氣, 地道右轉而主陰血. 陰常從陽, 爲陽之守, 故左尺反有命門之號.”

이상과 같이, 여자의 경우 左尺이 命門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張璐는 이를 衝脈, 任脈, 肝腎 등의 상관성을 통해 설명하였다. 여자는 陰血이 생리적 기능의 중심이 되며, 두 腎 가운데 陰血과 더 관련이 있는 左腎을 곧 여자의 命門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張璐의 설명은 朱丹溪가 『格致餘論』에서 肝腎을 精血의 隧道라 한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sup>30)</sup>, 左腎이 心, 肝과 함께 精血의 통로가 된다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래의 命門 개념 자체에 대한 張璐의 기본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그는 三焦의 眞火를 곧 命門의 실체로 보았다<sup>31)</sup>. 그리고 그는 두 腎과 命門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를, 두 腎 모두에 기본적으로 水와 火가 분포되어 있는데, 三焦가 두 腎 사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地의 운행에 따라 氣가 右轉하면서 右腎으로 相火가 편재하게 된다고 하였다<sup>32)</sup>. 즉 命門으로서의 三焦의 眞火가 氣의 右轉에 따라 右腎으로 편재되어 운행하므로 右尺이 곧 命門脈이 된다는 것이다. 張璐는 命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관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左尺이 여자의 命門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설명은 곧 남녀의 命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본 것이다.

그는 또한 『脈訣』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즉 남자는 精氣가 주가 되므로 右尺이 命門이 되고 여자는 精血이 주가 되므로 左尺이 命門이 된다고 한 것이다<sup>33)</sup>. 여기에서 ‘脈訣’이라 한 것은 『

30)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935. “肺主氣, 其脈居右寸, 脾胃命門三焦, 各以氣爲變化運用, 故皆附焉. 心主血, 其脈居左寸, 肝膽腎膀胱, 皆精血之隧道管庫, 故亦附焉. 男以氣成胎, 則氣爲之主, 女挾血成胎, 則血爲之主.”

31) 張璐. 診宗三昧. 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57. “夫所謂命門者, 即三焦眞火之別名也. ……則知六部之中, 部部不離三焦之氣也. 三焦爲眞火之源, 故有命門之號.”

32) 張璐. 診宗三昧. 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42. “人應其氣, 則三焦之火, 從此交通. 況三焦鼎峙兩腎之間, 以應地運而右轉, 是雖右尺偏相火, 爲生人生物之源. 因有命門之號, 其實兩腎皆有水火. 原無分子彼此. 以故岐伯于寸關二部, 俱分左右, 尺獨不分者, 一皆主乎腎也.”

33) 張璐. 診宗三昧. 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57. “三焦爲眞火之源, 故有命門之號. 難經獨以右尺當之而脈訣復有男女左右之分, 男以精氣爲主, 故右尺爲命

脈訣指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sup>34)</sup>, 『脈訣指掌』에서 말한 命門의 男右女左의 개념을 남녀 각각에 있어서의 精氣와 精血의 개념을 통해 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西嶽竇先生修真指南』에 나타난 命脈의 男右女左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의서에 나타난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은 기본적으로 남녀에 있어 兩腎의 발생의 차이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은 기존의 의서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脈訣指掌』의 내용을 통해 그 원류를 『西嶽竇先生修真指南』(이하 『修真指南』으로 간칭)이라는 道教저작에서 찾을 수 있었다<sup>35)</sup>. 물론 『脈訣指掌』에 나타난 命脈 관련 내용이 『修真指南』이 아닌 다른 저작에서 온 것일 수도 있으나, 『修真指南』이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저작에 담겨 있는 관련 내용을 통해 그 원류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저작에서 남녀 각각의 兩腎의 발생과 이에 따른 命脈의 배속을 논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사람이 생함에 있어 처음에 父와 母의 精血이 만나 조화되어 形을 이루게 된다. 父의 精이 먼저 進하고 母의 血이 후에 行하면 血이 精을 감싸면서 남자가 되니, 먼저 右腎이 생겨남은 陽에 속하고 日에 應함이며, 三魂이 精氣가 되어 내려 붉게 되어 丹田에 자리하게 되니, 이에 命脈이 右手의 尺部에 있다. 母의 血이 먼저 進하고 父의 精이 후에

門, 女以精血爲主, 故左尺爲命門.”

34) 張璠는 『診宗三昧』의 서문에서 『脈訣指掌』을 『丹溪指掌』이라는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다.

35) 『西嶽竇先生修真指南』은 『修真十書』 중의 『雜著捷徑』에서 찾아볼 수 있다. 『修真十書』는 唐末五代로부터 元代까지의 道教저작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그 안에 들어 있는 『雜著捷徑』도 『西嶽竇先生修真指南』을 비롯하여 『翠虛篇』, 『崔氏入藥鏡』 등의 여러 저작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雜著捷徑』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저작들은 그 저자가 표기되어 있는 데 반해 『西嶽竇先生修真指南』은 저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來하면 精이 血을 감싸면서 여자가 되니, 먼저 左腎이 생겨남은 陰에 속하고 月에 應함이며, 七魄이 眞氣가 되어 내려 검게 되어 子宮에 자리하게 되니, 이에 命脈이 左手의 尺部에 있다.”<sup>36)</sup>

윗 내용은 남녀의 성별이 결정되는 요인과 그에 따른 兩腎의 발생 및 命脈의 위치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남녀의 성별은 父의 精과 母의 血이 만나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남녀 각각 그 발생과정에서 兩腎 가운데 우측 또는 좌측의 腎이 먼저 생겨나게 된다. 이 저작에서는 腎의 발생으로부터 인체의 形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남녀 모두 臟, 腑, 經脈, 絡脈, 經穴의 순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남녀 각각에 있어 처음에 右腎 또는 左腎이 먼저 생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胃 이후로 생하는 순서가 남자는 胃, 膀胱, 左腎, 三焦의 순서를 거치는 데 반해 여자는 胃, 三焦, 右腎, 膀胱의 순서를 거친다는 것이다.<sup>37)</sup> 이와 같은 내용은 臟腑와 經絡의 발생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발생과정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이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매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道教저작 중 하나인 『西山群仙會眞記』의 경우를 보면 이 저작 역시 臟腑 및 經絡의 생성순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면서 남녀 각각에 있어 兩腎의 발생의 차이를 언급한 예에 속하지만<sup>38)</sup>, 『修真指

36) 張繼禹 主編, 西嶽竇先生修真指南, 中華道藏 十九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4. p.859. “凡人人生也, 初父與母交精血, 造化而成於形. 若父精先進, 母血後行, 則血包精爲男, 乃先生其右腎, 故屬陽應日, 主三魂降精氣, 赤而鑲丹田, 故命脈在右手之尺部也. 若母血先進, 父精後來, 則精裹血爲女, 卽先生其左腎, 故屬陰應月, 主七魄降眞氣, 黑而鑲子宮, 故命脈在左手之尺部也.”

37) 張繼禹 主編, 西嶽竇先生修真指南, 中華道藏 十九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4. p.859. “男子先生右腎, 右腎生脾, 脾生肝, 肝生肺, 肺生心, 心生小腸, 小腸生大腸, 大腸生膽, 膽生胃, 胃生膀胱, 膀胱生左腎, 左腎生三焦, 三焦生三元, (女則胃生三焦, 三焦生右腎, 右腎生膀胱, 膀胱生三元), 三元生八脈, 八脈生十二經, 十二經生十五絡, 十五絡生一百八係絡, 係絡生一百八十五孫絡, 孫絡生一百八十五滄絡, 滄絡生三百六十五穴, 穴生三百六十五骨處, ……”

38) 施肩吾, 西山群仙會眞記, 中華道藏 十九冊, 北京, 華夏出

南』의 예와 비교해 본다면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라 할 수 있다.

『修真指南』에서는 臟腑 및 經絡의 발생에 있어 특히 兩腎의 발생의 차이에 근거하여 남녀 각각 그 命脈을 다르게 배속시켰는데, 여기에서 ‘命脈’이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다. 이 저작에서는 命門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命脈이란 용어가 과연 命門과 관련되어 쓰일 수 있는 용어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修真指南』의 내용을 따르므로 보이는 『脈訣指掌』에서는 命脈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고 李梴은 “命門一云命脈”이라 하여 命脈을 命門과 연결지어 생각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李梴의 이와 같은 표현은 『脈訣指掌』에서의 命脈이란 표현을 命門脈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命脈과 命門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의문을 넘어 『修真指南』에서 命脈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命脈의 기초로서의 兩腎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다. 『修真指南』에서는 兩腎의 발생에 따른 命脈의 배속에 관한 내용에 덧붙여 “三魂降精氣, 赤而鎮丹田”과 “七魄降眞氣, 黑而鎮子宮”이라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兩腎의 기능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 내용에 따르면 남자는 右腎이 먼저 생하고 이 右腎과 관련하여 “三魂降精氣, 赤而鎮丹田”이라 하였고, 여자는 左腎이 먼저 생하고 이 左腎과 관련하여 “七魄降眞氣, 黑而鎮子宮”이라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修真指南』의 다른 부분에서 肝은 三魂을 制하고 肺는 七魄을 制한다고 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sup>39)</sup>, 이

에 따라 三魂과 七魄에 대한 부분을 兩腎과 肝, 肺 사이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三魂降精氣”는 肝으로부터 右腎으로 精氣가 행하는 것을 뜻하고 “七魄降眞氣”는 肺로부터 左腎으로 眞氣가 행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元代 余洞眞의 『悟玄篇』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이 저작에서는 肝液은 右腎에 이르러 血로 化하고 肺液은 左腎에 이르러 精으로 化한다고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sup>40)</sup>. 이와 같은 내용은 肝, 肺와 兩腎의 관계를 논했다는 점에서 『修真指南』의 내용과 상통하는 점이 있으며, 兩腎 각각에 精血이 장해되는 과정을 肝, 肺와의 관련성 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두 저작의 내용을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肝은 右腎, 血, 丹田과 관련이 되고 肺는 左腎, 精, 子宮과 관련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한편으로 『修真指南』에서는 또한 腎이 뿌리가 되어 五臟六腑가 생겨남을 논하면서 左腎과 右腎의 기능을 左升右降의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이를 『老子』에서 말한 바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이라 한 부분과 연결시켜 언급하기도 하였다.<sup>41)</sup> 이 내용에 따르면 左腎은 肝으로 氣가 升하는 것을 주관하고 右腎은 液을 納하여 膀胱으로 傳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腎으로부터 시작되는 氣液의 升降의 전반적인 대강을 논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앞에서 肝肺와 兩腎의 관계를 논한 부분과는 또 다른 맥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양자가 어떤 이론적 상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고찰의 여지가 있다.

版社. 2004. p.130. “『西山記』曰, 男子先生右腎, 以外精而內血, 陰爲裏也. 女子先生左腎, 以外血而內精, 陽爲裏也. 腎生脾, 脾生肝, 肝生肺, 肺生心, 心生小腸, 小腸生大腸, 大腸生膽, 膽生膀胱, 膀胱生三元, 三元生三焦, 三焦生八脈, 八脈生十二經, 十二經生十二絡, 十二絡生一百八十系絡, 一百八十系絡生一百八十總絡, 一百八十總絡生三萬六千孫絡, 三萬六千孫絡生三百六十五骨, 三百六十五骨生八萬四千毛竅, 胎完氣足, 靈光入體, 與母分離而爲人也.”

39) 張繼禹 主編. 西嶽竇先生修真指南. 中華道藏 十九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4. p.859. “肝曰青龍, 木在左, 無英居焉, 制三魂也. ……肺曰白虎, 金在右, 白元居焉, 制七魄也. ……”

40) 余洞眞. 悟玄篇. 中華道藏 十九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4. p.737. “子時兩腎中二氣上升, 午時到心, 二氣交合薰蒸, 肝肺之液自心而來, 左腎之氣負載肺液, 右腎之氣負載肝液, 亦下降矣. 亥時到於腎, 肺液到於左腎, 化而爲精, 肝液到於右腎, 化而爲血.”

41) 張繼禹 主編. 西嶽竇先生修真指南. 中華道藏 十九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4. p.859. “受胎之初, 所生二腎, 左爲玄, 玄以升氣, 上傳於肝, 右爲牝, 牝以納液, 下傳膀胱, 玄牝本乎無中來, 以無爲有, 乃父母之眞氣, 納於純陰之地, 故曰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可比天地之根, 自腎而生, 五臟六腑存焉.”

#### 4.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의 수용 및 전개에 대한 고찰

##### 1) 命脈 개념의 수용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은 남녀에 있어 兩腎의 발생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이론을 기초로 성립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道教저작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논고에서는 앞에서 『修真指南』의 내용을 통해 그 이론적 연원을 찾아보았다. 『修真指南』에서는 남녀 간의 兩腎의 발생의 차이를 말하면서 이에 따라 남녀 각각 命脈이 서로 다르게 배속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命脈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이와 관련된 이론이 일부 의가들에 의해 의학이론 상의 命門 개념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修真指南』과 같은 특정한 道教저작이 의학이론 중의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의 기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삼을 수 있는 예로서 의서들 중에는 남녀 간의 兩腎의 발생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命脈 내지 命門의 좌우 배속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즉 『幼科發揮』과 『古今醫鑑』이 그런 예들로서, 이들 저작에서는 남자는 右腎이 먼저 생하고 여자는 左腎이 먼저 생한다는 이론을 동일한 문장을 통해 신고 있지만<sup>42)</sup>, 저작의 다른 부분에 命門 내지 命脈의 男右女左 개념을 등장시키지는 않고 『難經』의 右腎命門의 개념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幼科發揮』과 『古今醫鑑』의 해당 부분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西山群仙會眞記』의 내용과 매우 유

사하다고 생각되며, 이 『西山群仙會眞記』에서도 역시 남녀 간의 兩腎의 발생의 차이만 언급했을 뿐 命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예를 볼 때에도 道教저작의 내용 중에 命脈이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분명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道教저작 중의 남녀의 좌우의 命脈의 개념이 의학이론에 원용되었다고 할 때, 『脈訣刊誤』와 『醫學入門』에서 볼 수 있듯이 高陽生의 『脈訣』에서의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의 부분이 실제로 命門의 男右女左와 관련된 것이라면 高陽生은 道教저작 중의 命脈의 개념을 의서에 원용한 초기 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高陽生은 六朝 시기의 의가로 알려져 있는데, 方春陽의 연구에서와 같이 『脈訣』이 宋代 熙寧 원년인 1068년에서 至元 5년인 1090년 사이에 成書된 것으로 보면서, 이에 따라 高陽生을 宋代의 인물이라 주장하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sup>43)</sup> 이와 같은 연구를 참고해 본다면 高陽生이 『修真指南』과 같은 저작을 참고하여 남녀의 尺脈을 다르게 보는 관점을 『脈訣』에 담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脈訣刊誤』에서 “脈經兩尺并屬腎與膀胱, 今脈訣以命門列右尺”이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脈訣』은 『脈經』과 달리 尺脈에 命門을 배속시켰고, 또한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이라 하여 尺脈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이를 논한 내용을 남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脈訣』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女人反此背看之, 尺脈第三同斷病”이라 한 것이 분명히 命門의 男右女左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으며, 후대 의가들 중에는 이를 다르게 이해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明代의 의가인 韓懋의 경우는 『脈訣』의 이 부분의 내용을 남녀에서 동일하게 우측 尺脈에 배속되는 命門의 脈形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sup>44)</sup>. 즉 韓懋는 남녀가

42) 萬全. 幼科發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p.1-2. “及其三月, 則先生右腎而爲男, 陰包陽也. 先生左腎而爲女, 陽包陰也. 其次腎生脾, 脾生肝, 肝生肺, 肺生心, 以生其勝己者, 腎屬水, 故五臟由是爲陰. 其次心生小腸, 小腸生大腸, 大腸生膽, 膽生胃, 胃生膀胱, 膀胱生三焦, 以生其己勝也, 小腸屬火, 六腑由是爲陽. 其次三焦生八脈, 八脈生十二經, 十二經生十二絡, 十二絡生一百八十絲絡, 一百八十絲絡生一百八十總絡, 一百八十總絡生三萬四千孫絡, 三萬四千孫絡生三百六十五骨節, 三百六十五骨節生三百六十五大穴, 三百六十五大穴生八萬四千毛竅, 則耳目口鼻四肢百骸之身皆備矣.”

43) 方春陽. 高陽生并非六朝人. 浙江中醫雜誌. 2003. 38(5). p.230.

44) 韓懋. 韓氏醫通. 中國醫學大成 二十二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0. “切脈至右尺部, 必兩手并診消息之. 取三焦應脈, 浮爲上焦, 與心肺脈合, 中爲中焦, 與脾胃合, 沉爲下焦, 與肝腎合. 不合則氣必亂而脈不眞, 須再切也.”

서로 반대된다고 하는 부분을 命門脈이 서로 좌우로 반대로 배속된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남녀가 동일하게 우측 尺脈에서 서로 강약의 대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 개념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脈訣』에서 논한 남녀의 차이를 확실히 命門의 男右女左의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며, 『脈訣刊誤』와 『醫學入門』 등에서의 관점은 『脈訣』의 해당 부분을 『脈訣指掌』이나 道教저작 등의 내용과 연결시켜 생각한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脈訣』의 내용에 대해 이상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때, 道教저작 중의 命脈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의서에서 命門과 관련되어 쓰이게 된 것은 朱肱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朱肱의 저작에서는 道教적 기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이후 『脈訣指掌』에서 『醫學入門』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흔적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이 저작들에서 볼 수 있듯이 命脈의 개념이 의학이론 중의 命門과 관련된 脈學적인 개념으로 원용되는 과정에서는 그 이전의 의서들에서 볼 수 있는 脈學이론들이 덧붙여졌으며, 이는 命脈의 男右女左 개념을 기존의 의학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며 수용하고자 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의 전개

『修真指南』에서 볼 수 있는 命脈 관련 내용은 남녀의 兩腎의 발생의 차이에 관한 것과 이에 따른 命脈의 배속 정도만을 언급한 것에 비해, 朱肱 이래로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을 논한 부분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에는 命門脈을 통한 生死의 판단이 강조되면서 이와 아울러 남녀에 있어 尺寸의 강약에 따른 順逆의 개념이 등장하거나 命門과 관련하여 神門이란 용어가 병렬된다든지 하는 등의 다소 복합적인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命脈의 개념

을 기존의 脈學이론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논고에서는 『醫學入門』에서의 예를 중심으로 그 문헌적 근거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命門脈을 통해 生死를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李梴이 “命門一云命脈，又兩尺前一分名神門，診命門脈上溢耳。凡病有此脈則生，無此脈則死.”라고 한 부분에 보이는 神門의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朱肱의 경우는 “關下一分爲神門”이라 한 것에 대해 李梴은 “尺前一分名神門”이라 하였는데, 양자는 서로 일치하는 개념으로서 동일하게 『脈經』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脈經』에 따르면 “『脈法贊』云，肝心出左，脾肺出右，腎與命門，俱出尺部，魂魄谷神，皆見寸口。左主司官，右主司府，左大順男，右大順女。關前一分，人命之主，左爲人迎，右爲氣口。神門決斷，兩在關後，人無二脈，病死不愈。”<sup>45)</sup>라 하였는데<sup>46)</sup>，여기에서 “神門決斷，兩在關後，人無二脈，病死不愈.”의 부분이 곧 命門의 개념과 연결되어 이해된 부분이다. 朱肱과 李梴이 神門의 위치에 대해 이를 ‘關下一分’ 또는 ‘尺前一分’이라 하였듯이 神門을 尺脈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나，맥학적 의의의 관점에서 神門을 命門과 관련지어 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의가들의 예를 보면，張璐의 경우 『診宗三昧』에서 이 神門을 곧 命門이라 하였으며，『難經』에서 尺脈이 先天의 命根이 된다고 한 개념을 빌어 설명하였다.<sup>47)</sup> 그리고 清代의 潘楫은 神門을 兩腎에 깃든 腎間動氣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難經』八難에서 腎間動氣와 관련하여 말한 “三焦之原，守邪之神”의 내용을 통해 神門의 개념을 논하였다.<sup>48)</sup> 이와 같이 『脈經』에서 찾아

45) 王叔和. 脈經.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6. p.4.

46) 이 내용 가운데 “關前一分，人命之主，左爲人迎，右爲氣口”의 부분은 후에 『三因極一病證方論』 등에서 人迎과 氣口를 통해 內因과 外因을 변별한다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47) 張璐. 診宗三昧. 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58. “復問神門爲心經之動脈，而王氏又云，神門決斷，兩在關後者，是指尺中腎脈而言，其故何也？答曰，神門之脈有二，如前所言神門即是命門，命門即是三焦，屬於七節之上，故于尺中求之，以尺爲六脈之根也。越人云，人之有尺，譬如樹之有根，水爲天一之元，先天之命根也。”

48) 潘楫. 醫燈續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 “決

蓋此部命門之火，系于心包而三焦之位，實在五臟部位之中虛處，一氣流行，綿綿不息，所謂呼吸之根，性命之蒂也。男子喜滿指沉實，似弱而無數滑，女人喜滿指浮泛，似盛而不伏澀。故云女人反此背看之，尺脈第三同斷病。”

볼 수 있는 神門이란 개념은 生死를 판단하는 곳이라는 중요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命脈의 개념은 이 神門의 개념과 연결되어 이해되면서 神門을 통해 生死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命脈에 덧붙여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李梴은 이 神門에 대해 “診命門脈上溢耳”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溢’이란 용어는 본래 『難經』에서 볼 수 있는 脈學적 개념의 것이다. 『難經』에 따르면 ‘溢’은 陰陽의 相乘에 따라 나타나는 脈의 양태를 표현한 용어로서<sup>49)</sup>, ‘覆’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脈訣指掌』에서는 ‘溢’의 개념에 대해 『難經』의 이 부분을 인용하는 한편 『難經』三十七難에서 “陰氣太盛，陽氣不得相營也，故曰格。”<sup>50)</sup>이라 한 부분을 추가로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sup>51)</sup>. 그런데 이에 대해 李梴의 다른 논의를 살펴보면, 그는 ‘溢’과 ‘覆’을 陰과 陽 중 어느 한 쪽이 편승한 상태로 보면서, 陽이 편승한 상태가 ‘溢’이 되고 陰이 편승한 상태가 ‘覆’이 된다고 하였다<sup>52)</sup>. 즉 이와 같은 관점에서 溢의 개념이란 陽이 尺에서 生하여 寸에서 動하게 된다 할 때 陽이 陰과 相濟하지 못하고 홀로 편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렇다면 『難經』에서 말한 ‘溢’이 陰乘之脈의 개념이라 할 때, 李梴은 이 ‘陰乘’의 개념을 陽이 尺에서 生하여 寸에서 動함이 편승한 상태인 것으로 말한 것이 된다.

또한 『難經』과 『脈經』의 내용을 함께 참고해 볼 때, 『難經』에서 ‘關之前者’라고 한 부분은 『脈經』에서 ‘關前一分’에 해당하고, ‘關之後者’라고 한 부분은 ‘兩在關後’의 부분에 해당한다. 『難經』에서 ‘溢’은 본래 陰乘之脈의 개념으로서 『脈經』에 따르면 ‘關之前者’에 나타나는 것인데, 李梴은 이를 ‘尺前一分’이라 하여 ‘關之後者’에서 언급한 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李梴이 말한 ‘溢’을 『難經』에서의 의미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溢’의 개념은 李梴이 ‘溢’과 ‘覆’의 개념을 논하면서 함께 언급한 “寸脈下不至關爲陽絕，尺脈上不至關爲陰絕，乃眞臟之脈而無中氣往來以和之也。”<sup>53)</sup>의 부분을 함께 참고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朱肱도 “寸脈下不至關，爲陽絕，尺脈上不至關，爲陰絕。”의 부분을 언급하였으며, 이 때 尺脈과 관계된 陰絕의 개념은 『難經』에서 肝腎의 氣가 絶한 상태로의 陰絶의 개념과 상통한다<sup>54)</sup>. 따라서 尺脈으로서의 命門을 살핍으로써 生死를 살핀다고 하는 것을 陰乘陽과 아울러 陰絶의 개념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命門을 통해 生死를 판단한다는 내용을 설함에 있어 『難經』과 『脈經』 등의 내용을 통해 그 방법론적인 구제성이 가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한 가지 더 고려되는 부가적인 요소는 남녀의 좌우맥의 상대적인 강약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李梴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凡男子診脈必先伸左手，女子診脈必先伸右手。男

斷神門，關後有兩者，指兩腎也，即應腎間動氣也，即『難經』八難所謂三焦之原，守邪之神，故曰神門。”

49) 전국한외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p.22. “曰，脈有太過，有不及，有陰陽相乘，有覆有溢，有關有格，何謂也？然，關之前者，陽之動也，脈當見九分而浮。過者，法曰太過，減者，法曰不及。遂上魚爲溢，爲外關內格，此陰乘之脈也。關之後者，陰之動也，脈當見一寸而沉。過者，法曰太過，減者，法曰不及。遂入尺爲覆，爲內關外格，此陽乘之脈也。故曰覆溢，是其眞臟之脈，人不病而死也。”

50) 전국한외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p.98.

51) 曹炳章 等輯. 『脈訣指掌病式圖說』. 中國醫學大成續集 二十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2. “經曰，陰氣太盛，則陽氣不得相營也。以陽氣不得營於陰，陰遂上出而溢於陽之分，爲外關內格也。外關內格，謂外閉而不下，陰從內出而格拒其陽，此陰乘陽位之脈也。”

52)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210. “脈生於陰陽，但陽生於尺而動於寸，陰生於寸而動於尺，關則陰陽相半，界二者之中。陽脈常浮而數，病在頭目胸膈，陰脈常沉而遲，病在臍腹腰腳，中脈即時浮沉，病在腹脅胃脘，陰陽恒宜相濟，不宜偏勝。若陽一于上而高過魚際，名曰溢，陰一于下而深入尺澤，名曰覆。寸脈下不至關爲陽絕，尺脈上不至關爲陰絕，乃眞臟之脈而無中氣往來以和之也。”

53)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210.

54) 전국한외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p.39. “然，五臟脈已絶於內者，腎肝氣已絶於內也，而醫反補其心肺，五臟脈已絶於外者，心肺氣已絶於外也，而醫反補其腎肝，陽絕補陰，陰絕補陽，是謂實實虛虛，損不足而益有餘，如此死者，醫殺之耳。”

子得陽氣多，故左脈盛，女子得陰氣多，故右脈盛。男子以左尺爲精府，女子以右尺爲血海，此天地之神化也，所以別男女，決死生。叔和云，女人反此背看之，尺脈第三同斷病，是也。”<sup>55)</sup>

이 부분은 李梴이 『脈訣指掌』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를 『脈訣』에서의 “女人反此背看之，尺脈第三同斷病”의 부분과 연결시킨 것이다. 『脈訣指掌』에서는 남녀의 尺寸의 강약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天의 定位에 따른 것이라 하였고, 남녀의 좌우 脈의 강약의 차이를 地의 定位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좌우 脈의 강약의 부분에 뒤이어 “所以別男女，決死生”이라 한 부분이 있는 것은 곧 命門의 男右女左를 논함에 있어 남녀 각각의 尺寸의 상대적인 강약을 바탕으로 둔 상태에서 남녀의 좌우 脈의 강약의 차이의 개념을 부가적인 관건으로 보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脈經』에서 “左大順男，右大順女”라 하여 좌우의 脈을 비교하는 것과 상통하며, 李梴도 『脈訣』의 “女人反此背看之，尺脈第三同斷病”의 부분을 이와 연결시킨 것이다. 다만 『脈訣指掌』에서는 命門의 男右女左에 따라 生死를 살핀다는 개념이 있는 한편으로 또한 “男子以左尺爲精府，女子以右尺爲血海”라고 하여 이를 통해 남녀를 구별하여 生死를 판단한다고 한 것인데, 이는 “別男女，決死生”의 관건이 命門보다는 오히려 남녀 모두 그 반대쪽의 尺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左大順男，右大順女”에 따르면 결국 남녀 모두 命門은 기본적으로 大하지 못한 쪽이고 그 반대쪽의 이른바 精府와 血海가 大한 쪽이 되는데, 예후를 판단함에 있어 이 大한 쪽의 尺脈이 더 중시 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좌우의 陰陽 속성에 있어서도 일정하지 않은 면을 보이고 있다. 李梴은 『脈訣指掌』에서의 남녀의 精府와 血海의 개념에 대해 이를 기본적으로 좌측은 陽이고 우측은 陰이라는 개념에 따라 남자는 좌측 脈이 盛하고 여자는 우측 脈이 성하다는 이론과 연결시켰다. 여기에서 만약 좌측은 陽이고 우측은 陰이라는 개념을 따라 命門의 男右女

左 개념을 본다면 남자의 命門은 陰의 자리에 위치하고 여자의 命門은 陽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脈訣指掌』에서는 또한 “男子先生右腎，右屬陽”，“女子先生左腎，左屬陰”이라 하여 좌우의 陰陽 속성을 반대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修真指南』에서 “血包精爲男，乃先生其右腎，故屬陽應日”이라 하고 “精裹血爲女，即先生其左腎，故屬陰應月”이라 하여 右腎은 陽에 속하고 左腎은 陰에 속한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이와 같이 좌우의 陰陽 속성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러 다양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은 『難經』, 『脈經』 등의 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되면서, 生死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임상적 의의와 함께 그 구체적인 脈學적 방법론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론체계들이 서로 맞물려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이론적 정합성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 3) 臟腑論적 의의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은 기본적으로 남녀에 있어 兩腎의 발생의 차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이에 따르면 兩腎의 기능적 차이는 남녀의 생리적 특성과 관련된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兩腎의 기능적 차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難經』에서 左腎右命門의 개념을 말한 바 있으며,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이 과연 『難經』의 左腎右命門의 설과 다른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고찰의 여지가 있다. 『難經』에서는 命門에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았고, 다만 그 기능과 관련하여 남자는 ‘藏精’이라 하고 여자는 ‘繫胞’라 한 것과 같은 간단한 내용만을 언급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을 생각해 보면, 남자의 命門은 『難經』에서 말한 것과 같고 여자의 경우는 『難經』에서 말한 ‘繫胞’의 기능이 左腎과 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張璐는 여자의 경우 左腎이 命門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를 陰으로서의 精血과 左腎 간

55)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216.

의 상관성으로 설명하였으며<sup>56)</sup>, 이는 『難經』에서 말한 ‘女子以繫胞’를 사실상 左腎과 관련지어 생각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兩腎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는 『難經』의 경우와 같지만 여자의 命門을 左腎으로 본 점이 『難經』과 다른 것이며, 이는 곧 兩腎 각각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남자는 右腎의 기능적 특성을 위주로 남자의 생리적 특성이 발휘되고 여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점이 과연 『修真指南』과 같은 道教저작에서 본래 언급한 내용에 잘 부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修真指南』에서 兩腎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三魂降精氣，赤而鑛丹田”，“七魄降眞氣，黑而鑛子宮”이라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三魂降精氣，赤而鑛丹田”은 右腎과 관련된 부분이고 “七魄降眞氣，黑而鑛子宮”은 左腎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右腎은 丹田과 연결되고 左腎은 子宮과 연결되는 것이며, 또한 그 연결관계가 肝肺와의 상관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右腎과 左腎의 서로 다른 기능적 특성이 남녀 각각의 생리적 특징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命門의 男右女左를 논한 예는 아니지만 明代의 의가인 孫一奎가 『醫旨緒餘』에서 언급한 내용도 兩腎의 기능적 차이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醫旨緒餘』에서 道教저작의 내용을 인용하여 腎의 발생에 대해 논하였는데<sup>57)</sup>, 이 부분에서는 兩

腎의 발생에 있어 남녀의 차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左腎이 먼저 생한 다음 右腎이 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은 孫一奎가 命門을 腎間動氣의 개념으로 보면서 이를 『難經』의 左腎右命門의 개념과 조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難經』의 左腎右命門의 개념을 左血右氣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 孫一奎가 『黃帝陰符經』이라는 이름으로 언급한 道教 저작은 본래 『陰符經三皇玉訣』이라는 이름의 것으로서, 이 저작에서 언급한 兩腎의 기능적 특성을 孫一奎가 左血右氣로 인식한 점은 兩腎 간의 기능적 특성의 차이에 관한 거시적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左右의 腎의 기능적 차이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남녀 각각의 생리적 특징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특히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은 남녀 각각 左右 어느 한 쪽의 腎이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관점 하에서 그 차이가 어떻게 남녀 각각의 생리적 특징과 관계되는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 론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은 寸口脈에서 命門을 살핀데 있어 남자는 우측 尺脈을 살피고 여자는 좌측 尺脈을 살핀다는 개념이다. 이는 남녀 간에 兩腎의 발생의 순서가 다르다는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命門의 脈診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이 등장하는 저작들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것이 『西山竇先生修真指南』과 같은 道教 저작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西山竇先生修真指南』과 같은 道教 저작에는 인체의 발생과정 중의 臟腑 및 經絡의 발생순서가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서 兩腎의 발생의 순서가 남녀 간에 서로 다르며 이로 인해 命脈의 위

56) 明清代에 새롭게 전개된 命門學說에서는 命門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難經』에서의 腎間動氣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張景岳의 경우와 같이 命門의 위치를 새롭게 확정하면서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 자체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命門으로부터 특정한 기전에 따라 水火가 左右로 발현된다는 점을 左右의 腎과 관련짓는다면 이 역시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의 틀 내에서 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張璐의 경우는 命門으로서의 三焦의 眞火가 氣의 右轉에 따라 右腎으로 편재되어 운행하므로 右尺이 곧 命門脈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여자의 경우 左尺이 命門脈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이를 肝腎 및 精血과의 상관성 하에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7) 孫一奎. 醫旨緒餘.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50. “或曰，然則越人不由原氣言命門，而曰右

腎爲命門何也？予曰，此越人妙處，乃不言之言也，言右腎則原氣在其中矣。蓋人身之所貴者，莫非氣血，以左血右氣也。觀『黃帝陰符經』曰，人腎屬於水，先生左腎，象北方大淵之源，次生右腎，內有眞精，主五行之正氣。越人故曰原氣之所系，信有核歟。”

치 역시 남녀가 서로 左右로 반대가 된다고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남자는 右腎이 먼저 생하므로 命脈이 우측 尺部에 있고, 여자는 左腎이 먼저 생하므로 命脈이 좌측 尺部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의서들 중에는 高陽生の 『脈訣』이 여러 의가들에 의해 命門脈의 男右女左를 말한 초기 저작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脈訣』의 내용이 실제로 이 개념을 말한 것이라면 『西山竇先生修真指南』과 같은 道教 저작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이 개념은 朱肱의 『類證活人書』를 비롯하여 『脈訣指掌病式圖說』과 『醫學入門』 등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을 말한 의가들은 道教 저작에서의 命脈이란 용어를 命門脈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難經』과 『脈經』 등의 기존의 脈學이론과 결합되면서 의학이론 내에 수용될 수 있는 이론적 설득력 및 임상적 방법론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命門脈의 男右女左 개념은 남녀가 命門脈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脈位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尺寸 및 左右의 脈의 상대적인 강약과 같은 脈形의 개념을 아울러 고려하는 양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은 단지 脈學적인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臟腑로서의 命門까지도 男右女左의 관점에서 언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서 命門의 男右女左 개념은 남녀 각각 먼저 생하는 쪽의 腎을 命門이라 함과 아울러 左右의 兩腎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으므로, 남녀 각각의 생리적 특징이 그 命門이 되는 腎의 생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References

1. 吳祺鏞 譯. 國譯王叔和脈訣. 서울. 成輔社. 1994. p.42, 43.  
KY Oh. Wangshuhe Maijue(translated into Korean). Seoul. Sungbosa. 1994. p.42, 43.
2. 戴起宗. 脈訣刊誤.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9, 10.

- QZ Dai. Maijue Kanwu. Wangshishanquanshu. Beijing. China Press of TCM. 2005. p.9, 10.
3.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p.85-86, 91-92.  
G Zhu. Leizheng huorensu. Seoul. Namsandang. 1987. pp.85-86, 91-92.
4.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p.22, 39, 57, 98.  
Dept. of medical classics. Nanjing. Seoul. Bubin Publishers Co. 2010. p.22, 39, 57.
5. 曹炳章 等輯. 脈訣指掌病式圖說. 中國醫學大成續集 二十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2, 87-89. p.12.  
BZ Cao. Maijuezhizhang Bingshitushuo. Zhongguoyixue Dacheng(additive edition 22). Shanghai. Shanghai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s. 2000. pp.1-2, 87-89.
6. 張繼禹 主編. 西山竇先生修真指南. 中華道藏十九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4. p.859.  
JY Zhang. Xiyuedouxiansheng Xiuzhenzhinan. Zhonghuadaozang(19). Beijing. Huaxia Publishing House. 2004. p.859.
7. 李梴.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154, 159, 160, 162, 171, 172, 206, 210, 216.  
Y Li. Yixuerumen.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8. p.154, 159, 160, 162, 171, 172, 206, 210, 216.
8.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928, 935.  
DX Zhu. Gezhiyulun. Jinyuansidajia Yixuequanshu.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p.928, 935.
9. 張景岳. 質疑錄.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812, 816.  
JY Zhang. Zhiyilu. Yian-yihua-yilun mingzhujicheng. Beijing. Huaxia Publishing House. 1997. p.812, 816.

10. 張景岳 著. 李南九 懸吐注釋. 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140.  
JY Zhang, NG Lee(annotation). Jingyue Quanshu. Seoul. Bubin Publishers Co. 2007. p.140.
11. 張璐. 診宗三昧. 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42, 957, 958. pp.965-966.  
Lu Zhang. Zhenzongsanmei. Zhanglu Yixuequanshu. China Press of TCM. 1999. p.942, 957, 958. pp.965-966.
12. 施肩吾. 西山群仙會真記. 中華道藏 十九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4. p.130.  
JW Shi. Xishan Qunxian Huizhenji. Zhonghuadaozang(19). Beijing. Huaxia Publishing House. 2004. p.130.
13. 余洞真. 悟玄篇. 中華道藏 十九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4. p.737.  
DZ Yu. Wuxuanpian. Zhonghuadaozang (19). Beijing. Huaxia Publishing House. 2004. p.737.
14. 萬全. 幼科發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p.1-2.  
Q Wan. Youkefahu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Co. 2006. pp.1-2.
15. 韓懋. 韓氏醫通. 中國醫學大成 二十二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0.  
W Han. Hanshiyitong. Zhongguoyixue Dacheng(22). Shanghai. Shanghai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s. 1990. p.10.
16. 王叔和. 脈經.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6. p.4.  
SH Wang. Maijing. Beijing. Scientific and Technical Documentation Press. 1996. p.4.
17. 潘楫. 醫燈續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  
J Pan. Yidengxuyan. Beijing. China Press of TCM. 1997. p.6.
18. 孫一奎. 醫旨緒餘.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50.  
YK Sun. Yizhixuyu. Sunyikui Yixuequanshu. Beijing. China Press of TCM. 1999. p.650.
19. 黃元德, 金重漢. 氣口脈診法の 藏府配屬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9. 12(1). pp.243-244.  
WD Huang, JH Kim.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viscera of the pulsation examination method of the KiGu.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2(1). pp.243-244.
20. 陳誼敬, 鄭洪新. “命門”辨析. 中華中醫藥學刊. 2013. 31(7). p.1537.  
YJ Chen, HX Zheng. Discussion on Vital Gate. Chinese archiv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31(7). p.1537.
21. 沈劼. 『脈訣指掌病式圖說』及其作者考證.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3. 14(4). p.151.  
J Shen. A study on *Maijuezhizhangbingshitushuo* and its author. Journal of Nanjing University of TCM(Social science). 2013. 14(4). p.151.
22. 方春陽. 高陽生并非六朝人. 浙江中醫雜誌. 2003. 38(5). p.230.  
CY Fang. Gao yang-sheng is not a person lived in Liu-chao dynasty. Zhejiang Journal of TCM. 2003. 38(5). p.230.

